

2019학년도 제 4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9년 4월 15일(월) 15:00~17:0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종진 (위원장)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전종호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 불참위원 : 김정미 (주간MBA 원우회장)
 최효영 (대학원 총학생회장)
- 배 석 :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안미경 (재무팀 과장)
 이근화 (간사 / 기획예산팀 직원)
 이관엽 (자연과학부)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확인 및 심의 보고자료 내용 해설

- 2018학년도 회계결산보고 및 2018학년도 적립금 현황 보고 자료를 설명함

① 재무팀(안미경 과장 배석)에서 아래와 같이 2018학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함.

- 아 래 -

(단위 : 억 원)

구분	등록금	비등록금	계
세입	997.5	936.8	1,634.3
세출	990.0	644.3	1,634.3

* 세입 : 등록금, 전입 및 기부 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본부채수입, 전기이월자금

* 세출 :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자본부채지출, 차기이월자금

② 기획예산팀(김장훈 과장 배석)에서 적립금 현황 및 목적 변경 내역 등에 대해 설명함.

2. 위원 발언 및 질의응답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결산 상황을 보면 학교가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 것 같으면서도, 수입, 지출 감소 등의 자료를 보면 학교가 어려워지는 면도 느낄 수 있음. 결산 내역 뿐만 아니라 총장님의 모금 실적, 계획 등 학교가 좋아진다는 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등록금 수입, 전입 기부금 수입 등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외국인 학생은 늘어나는 반면 대학원생들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점점 대학의 질적 수월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짐. 또한 기부금 수입도 감소하고, 등록금 의존율이 69%까지 올라가는 등 재정적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임.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대학원생 후배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학원 사물함 부족 등 학교가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 같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느껴짐. 결산 보고에서 인건비 및 각종 지출 감소 등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뛰어난 교수진을 위해 자금을 투자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 아쉬움. 동문들의 투자를 위해서도 동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음.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학교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설명하자면, 현재 모금 캠페인을 서강대학교 학과만의 특수성이나 방향성이 담긴 발전계획과 연동하여 진행하려고 함. 뛰어난 교수진을 모셔 교육 수월성을 올리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음. 내년 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여러 재정적, 교육적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학교가 노력을 기울이려 함.

이종진 (위원장)

우리 대학의 각종 지표만 본다면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대학의 대외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강사법과 관련하여 타 대학의 경우 지출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 대학은 3년 연속 흑자 결산을 기록하며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재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예를 들어 공간의 경우에도 각 학부마다 휴게실을 새로 만들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등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음. 대학혁신지원사업 컨설팅에서도 사업계획서 상 흠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타 대학들이 채무 이자로 많은 돈을 지출하는 데 비해 우리 대학은 거의 채무가 없는 점 등 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해야 함.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외부의 평가지표에서도 학교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우리 대학의 이름을 찾기 힘든 점도 안타까움. 균형 재정을 이루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균형 재정으로는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 보기 어려움.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전임 집행부에서 법인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고, 감사 후에 발견된 적립금 -148억 원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 운영 예산 절감에 노력을 기울였고 흑자 결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우리 대학의 반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퇴임하시는 80~90명의 전임교원을 대신할 뛰어난 교수진의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이 점에 중점을 두고 학교 발전의 방향을 정하려고 함.

이종진 (위원장)

이전 집행부에서 정하상관과 떼이아르관의 공사비, 전임 총장의 우정원, 현리 철우만례사 인성교육원 공사 등으로 계속 건축기금 및 기타기금을 소진하였던 바 있고, 그로 인한 적립금 -148억 원을 회복하는 데 현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람. 동문회에서 학교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본부의 노력에 대한 좋은 평가도 필요함.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예전 서강대학교가 유명했던 것은 교수진에 대한 투자가 컸기 때문임. 이제 서강대학교가 60주년을 맞아서 동문들도 많이 도와 서강대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함.

이종진 (위원장)

기획처에서도 교수진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SciVal을 구매하여 연구력을 분석하고, 공학부 교수들을 독려하여 연구력 향상에 힘쓰도록 주문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앞으로 수년 후에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하여 주시기 바람.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현재 동문회장이 교체될 예정이며, 앞으로 법인과 학교 운영에 대해 동문들의 발언권이 확대되어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동문회 회장도 당연직 이사가 아니고, 이사직 중 동문 비율도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사직에서 동문의 발언권이 확대되고 의견이 잘 반영되어 전향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바람.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대학원 인프라와 관련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부채비율이 많이 낮은 상태인데 부채 비율을 조금 늘려서라도 교원 충원에 투자할 계획을 본부에서 갖고 있는지

이종진 (위원장)

교원을 충원할 수 있는 재원 중 SK-SUPEX 기금에서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으로 해당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원 유치에 힘쓸 계획임. SK 측에서도 기금이 학교 발전을 위해 잘 사용되었을 시에는 기금을 더 제공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힌 바 있음.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SK-SUPEX 기금이 50억 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종진 (위원장)

처음 기금은 100억 원이었고, 각종 학생지원, 학술지원을 위해 매년 사용해 왔음.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평가손익이 -27억 원 정도 되고, 수취한 이자가 30억 원 가량 되는데 평가손익이 많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안미경 (재무팀 과장)

기존의 부동산 펀드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오면서 시가평가 시에는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는 보유함으로써 회계적으로만 존재하는 미실현손익이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계속 이자를 수취하였음. 회계상 평가손익과 이자수익을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해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로 수익을 냈음.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2007년 펀드 투자 이후로 평가손익에 대한 적립금도 많이 쌓아 놓았고, 현재 펀드의 리스크도 많이 줄어든 상태임.

전종호 (학생문화처장)

언론에서는 펀드 투자로 인해 크게 손해를 입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나 내부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보도로 보임.

이종진 (위원장)

한 때 대학들이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계획한 적이 있으나 많이 손해를 보곤 했음. 우리 대학도 은행에 예금했을 때와 다르게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자를 수취하여 많이 손해를 만회하였음. 2~3년 안에는 모두 청산이 될 것으로 보임.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발생했던 문제로 알고 있음.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적립금 -148억 원에 대한 상환 스케줄은 어떤 기준으로 매년 상환금액을 정하는지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학교에서 수지차액 흑자 결산 후 남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이월기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음. 수지차액 관리가 잘 되어 상환 스케줄도 앞당겨진 것으로 보임.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실험실습비가 2억 원 감소된 것이 대학원생 감소로 인한 영향인지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실험실습비의 경우 등록금이 감소되면 비례적으로 감소됨. 이공계의 경우 실험실습비를 학부에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학부에서 내부적으로 나누는데, 대학원 수입이 줄어들어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장학금과 실험실습비 등이 감소하게 됨.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실험실습비가 등록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등록금에는 실험실습비 뿐만 아니라 강의실, 연구실 및 교원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움. 학과 간 등록금 차이가 실험실습비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시설 및 교육환경을 종합해서 보아야 함.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대학원생 감소가 이공계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험실습비가 감소했다고 보아야 하는지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세부적인 내용은 학부별 대학원생 감소 자료를 보아야 함.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면 기획처에서 열람할 수 있음.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실험실습비에 대한 실질적인 배정, 배정금액은 각 학부행정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실에도 문의할 수 있음.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기부받은 주식 중 처분한 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주식을 소액 처분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안미경 (재무팀 과장)

기부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았는데, 신주인수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본 주식을 일부 판매해야 해서 처분하게 됨.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기부받은 주식은 전자공학과와 ICT융복합재난안전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보유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판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종진 (위원장)

기획처에서도 주식 판매를 통해 학교에 이익이 될 지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음.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각 학부 휴게실 공간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상황인데, 신설되고 있는 휴게실 공간 확보가 캠퍼스 조성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지

이종진 (위원장)

휴게실의 경우 공간과 관련된 문제로, 현재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 사용 가능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휴게실 공간으로 배정하고 있음. R관에서는 휴게실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 RA관에 휴게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바로 공간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일이 걸리는 사안임.

이종진 (위원장)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등록금 및 예결산 현안 논의에 집중하고, 추후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비공식적으로 위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학교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함.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학교회계 상 자금계산서와 운영계산서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인지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학교회계에서 자금계산서는 현금흐름표, 운영계산서는 손익계산서라고 보면 되며, 감가상각 등 계정이 추가되어 금액이 다를 수 있음.

3.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설명

- 기획예산팀(이근화 직원/간사 배석)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설명함
- 개정(안) 주요 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예산 및 결산의 심사·의결'을 신설
 - 위원회의 구성에 각 위원의 현재 위촉 과정, 절차 내용을 추가
 - 위원회의 소집과 사전 안내의 내용을 추가
 -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추가

4. 규정 개정 관련 위원 발언

김형은 (학부 총학생회장)

위원회의 개최 및 안내 내용의 경우 구체적으로 며칠 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근화 (기획예산팀 간사)

현실적으로 이번 학생 위원의 위촉 건도 있고,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대안으로 규정에 기한을 명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하게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 회의와 같이 학생 위원이 촉박하게 임명되는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결정사항

- 2018학년도 결산 확정 및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위원회 개최 및 안내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2019. 4. 22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이종진 기획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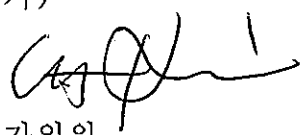
(교직원 위원)


(학생위원)


(외부전문가)

김달원 
법인 사무팀장

김형은 
학부 총합장

김창배 
동문 전문가위원

전종호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